

# 침수차량 손해액 수천억원... 손보사, 3분기 실적 먹구름

한남노 발생 지난 5~7일 대형 4사 침수차 5748건, 추정 손해 464억  
지난달 집중호우엔 9932건 접수 추정 손해 1391억5000만원 달해  
“최근 불안한 시장상황 발생에 실적상승폭 다소 축소될 전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이용량이 줄며 손해율 개선 효과로 호실적을 거둬 왔던 손해보험사의 올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최근 태풍 한남노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까지 겹치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1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한남노로 인한 폭우가 발생한 지난 5일부터 7일 오후 3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574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지난 8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464억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손보사 12곳의 차량 침수 피해는 총 6762건, 546억3200만원이다.

손보업계의 악재는 한남노뿐만이 아니다. 앞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도 이

미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에 따라 지난달 18일까지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9932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391억5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12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를 살펴보면 1만1685건으로 추정 손해액은 1637억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외제차 피해가 전체 침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반사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왔던 손보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상반기 삼성화재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749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전자 특별배당을 제외하면 18.9% 늘어난 수준이다. 현대해상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44.9% 증가한 3684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DB손보도 전년 동기보다 32.2% 늘어난 56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포함한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영향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 상

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7.1%로 전년 동기보다 2.3%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2017년 7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최근 연이은 기상이변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최근의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실적 상승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한 데다 비록 계절성이 크지만 상반기 대비 실적 모멘텀이 둔화되고, 단기적인 규제 개선 기대감도 약화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년 동기에는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낮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수도권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 증가했다”라며 “지나해와 다르게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없으므로 추석 연휴 간 차량 이용 증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금융위 “안심전환대출로 이자부담 덜어요”

오늘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25조 규모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금리상승기에 서민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14일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정책 상품을 말한다. 이번에 접수받는 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25조원 규모로 판매된다.

이번 접수 대상은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다. 우선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이 소진되면 4억원 이하 보유자에 대한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8월16일까지 취급된 대출이 대상이며 만기가 5년 이상이면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보급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해 3.80~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대출을 위해 15일부터 10월17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접수처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

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은행(영업점·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한다.

회차별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규모인 25조원이 넘으면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 신청절차 없이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통상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된다”며 “신청조건 및 가능한 날짜 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금리 2.3%로 상향

매월 넷째주 토요일 이자 지급

케이뱅크는 ‘플러스박스’ 금리를 0.2%포인트(p) 인상해 연 2.3%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플러스박스는 케이뱅크의 파킹통장 상품으로 돈을 임시로 보관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빼서 예·적금,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플러스박스는 하루만 맡겨도 약정금리가 적용되고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는 쌓인 이자를 준다.

최대 한도는 3억원까지로 이 경우 최고 약 48만원(30일·세후 기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등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를 해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게 케이뱅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6월 MZ세대를 겨냥해 출



시한 ‘기분통장’도 연 2.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분통장은 매일 그날 기분 에 따라 ‘감정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파킹통장으로선 은행권 최고 수준의 금리와 한도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우리금융 ‘우리WON카 가을맞이 이벤트’

앱 설치, 신규가입 고객 대상

우리금융그룹은 우리WON(원)카드 앱을 설치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WON카 가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이 함께 진행하며 우리금융 3사의 금융상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우리WON카’ 앱을 설치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랜덤(random)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캐피탈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우리카드 3개 자회사가 참여해 자동차금융 통합 플랫폼 ‘우리WON카’를 출시한 바 있다.

경품은 ▲애플 맥북에어 M2(1명) ▲뱅앤올룹슨 베오사운드 A12세대(1명) ▲아쿠아 디 파르카 디퓨저(3명) ▲애플 에어 태그(10명) ▲BHC 뿌링클+콜라 1.25L 기프트론(20명) ▲카카오 허그 목 쿠션(30명)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T 기프트론 1잔(100명)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WON카 혜택/이벤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용 기자

## 신용정보원-금융연수원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한국신용정보원은 한국금융연수원과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데이터 처리·분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양기관은 소정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금융데이터관리사’ 자격증을 공동 발급하기로 했다.

금융데이터관리사 자격 연계 연수과정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총 35시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처음 진행된다.

금융데이터관리사 양성 연수과정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

## 금리 3.7% ‘26주 적금 with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27일까지 개설 가능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과 제휴한 카카오뱅크의 여섯번째 파트너적금인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에 카카오톡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카카오뱅크는 생활 속 금융 혜택 확대를 목표로 다른 기업들과 함께 파트너적금을 만들어오고 있다. 2020년 8월 이마트를 시작으로 마켓컬리, 해피포인트, 카카오페이지, 오늘의집 등 다양한 기업과 함께 파트너적금을 출시했으며, 도전형 저축상품에 소비 혜택을 결합한 ‘뱅크 커머스 트렌드’를 선보여 왔다.

이번 상품의 가입 기간은 오는 27일까



자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최대 연 3.70%의 금리가 적용된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6주적금 with 카카오톡’ 계좌를 개설하고 26주간 각 혜택 제공 주차까지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2주차와 17주차에 ‘이모티콘 플러스’ 1개월 이용권과 1, 6, 13, 18, 25주차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승용 기자